

# 출입문 비밀번호 노출...아무나 들어가는 원룸

## ‘번호키’ 옆 벽면에 표기 배달 위해 적어 놓은듯 설 연휴기간 방법 비상

광주지역 상당수 원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공개돼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의 낯선 이방인 출입을 막기 위한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배달업체 종업원들에게 무심코 알려준 비밀번호가 현관 출입문 벽면 등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도난사고 등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약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12일 광주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원룸 등 다세대 주택 건축주들이 거주자와 이방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해당 원룸 벽면



원룸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옆에 표시된 비밀번호(검은 점선).

에 그대로 적힌 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남구 A원룸의 경우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공간 옆에 숫자가 파란색 매직으로 큼직하게 적혀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그 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려 거주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원룸에 거주한다는 C(여·21)씨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적어놓는지 소름이 돋는다”며 “건물 앞 현관문을 밟고 여름철 방문을 열어놓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밀집한 서구 원룸촌 내 B 원룸도 벽면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네 자리 숫자를 누르면 곧바로 문이 열리는 등 비밀번호가 해당 거주자 이외의 사람들에겐 공개되고 있는 형편이다.

범죄 발생을 우려,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거주자들에게만 제공되는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원룸 건축주들의 현관 출입문 설치 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경찰 등은 일단, 음식점·택배 직원들이 매번 고객들에게 전화해 건물로 들어가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한 번 알게 된 번호를 적어놓으면서 유흥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관련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시급한 비밀번호 변경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건의 빈집 탈이가 설·추석 명절에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8건의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안심구역 등 원룸밀집 지역을 순찰하면서 현관 비밀번호가 공개된 원룸의 경우 사업주들에게 알려 비밀번호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 건축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동구 5556동 ▲서구 2만600동 ▲남구 719동 ▲북구 1331동 ▲광산구 6451동에 이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형 세상 떠나자...홀로 살던 동생 목숨 끊어

부모를 잃고 오랜 기간 형에게 의지해 온 30대 남성이 ‘부모’ 같은 형의 죽음에 비관, 뒤이어 목숨을 끊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A아파트 오모(32)씨 집에서 오씨가 숨진 채 쓰러져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5개월간 미납된 관리비 독촉장을 전하러 찾아가다가 창문 틈새로 쓰러져 있는 오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비어있는 의약품 통과

서가 발견됐다. 지난달 1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형이 너무 보고 싶다. 형 찾으러 가볼게”라고 써여 있었다.

오씨는 지난 16년간 함께 지내온 형이 지방으로 숨지자 상심에 빠져 하던 일을 그만둔 뒤 바깥 출입을 삼간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형을 잃은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 항공기 항로변경죄 첫 적용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징역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출근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꼰웃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관심을 끌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막바지에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어깨를 들쭉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 김성 장흥군수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김성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하겠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선거 사법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선거 공보물에 게재된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전과 관련 소명 문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비중과 의미를 알고 단순 폭력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포장해 지지도를 높여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 공보물 2만38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민선 6기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중 김 군수 이외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서 장성군수 등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지용기자 dok2000@



“설 떡국 나눔 행복해요” 12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열린 ‘설맞이 떡국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800세대에 전달할 떡국 떡을 포장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의사의 기지...가족 구하고 강도 붙잡아

### 문 열자 강도 기습...남편과 격투 거칠 문 잠근 뒤 112 즉각 신고 단행하는 현관문 비밀번호 출동 경찰에 문자전송 검거

여의사의 현명한 대처가 강도로부터 남편과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범인 검거에도 도움을 줬다. 경찰도 신속한 대응으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초기에 수습했다.

전직 제약회사 영업직원 안모(34)씨는

회사 근무 시절 거래처였던 의사 A(48)씨 부부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기 위해 12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10분여 흐른 뒤 현관문이 열리면서 A씨와 고 3에 진학하는 아들이 나오자 안씨는 갑자기 달려들어 부자를 현관문 안으로 몰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어 흉기로 부자를 위협, 10여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A씨 부자에게 서로 몸을 묶으라고 소리치면서 청타이프를 던졌다. 광주 모 병원 원장인 A씨와 아들은

흉기를 들고 미리 500ml 생수병에 담았던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하는 안씨를 상대로 현관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비명을 들은 여의사 아내 B(49)씨는 위기를 직감하고서 순간적으로 현관문과 거실 사이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신고했다. 주변을 순찰 중인 지구대원들이 1분여 만에 도착했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상황. B씨는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했다. 문자 메시지로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보내 경찰이 신속히 들어오게 도운 것이다. 경찰이 현관문을 열어 테이저건을 쏘고 들이닥치는 순간 아내 B씨도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뿌리며 검거를 도왔다.

이 모든 게 불과 5분여 만에 일어난 상

황. 범인 검거에는 경찰의 빠른 대응도 한 몫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 112 상황실은 정식 출동 지령을 내리기 전에 ‘선지령’으로 신고 내용을 순찰 중인 지구대원들과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팀과 공유했다. 신고내용을 듣고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신속히 움직인 지구대 경찰관들은 정식 출동 지령이 떨어진 7시 37분 이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1년여 전부터 실직 상태로 1억원 상당의 빚을 안게 된 안씨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여의사의 기지에 결국 철창 신세가 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무료 생활정보지 수십부 가져가 되판 60대 ‘절도죄’에



○...동네 약국 앞길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무료 생활정보지 41부를 훔친 혐의.

○...박씨는 훔친 생활정보지를 1kg당 100원을 받고 고물상에 내다팔았는데, 담당 경찰은 “무료 신문일지라도 다량으로 가져가면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만큼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설명. /박기용기자 pboxer@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을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5천	④ 전대상대 2분 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중흥동 원룸 룸12개, 상가1개, 주택1개 월세 385만, 매매가 10억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울수리〉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2억, 용 6억)

염주동 상가건물 매매 3층건물 (먹거리코너) 1~2층 사무실 3층 주택 월수익 400만 (주인거주)

**매매가 7억** (보 1억 용 3억)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가 2억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임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가 3억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억, 월수익 70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원지구 모아엘가빌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0억	

(주)대신 010-6670-9800

###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평수 100평 (전용 80층) 이면도로 코너 학원리모델링함 주차3대 확보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보 3천만, 월 130만**

### 나주 상가 사무실

매매·임대

- ① 학원 2층 가능, 영강 초교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 (2층 2칸)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근린주택

- ① 북구 운암동 (토 273㎡, 건물 2,916㎡) 감평가 2억4천, 최저가 1억7천
- ②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3㎡)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 1천
- ③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천, 최저가 3억5천
- ④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저가 5천6백
- ⑤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6천, 최저가 24억
- ⑥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8천, 최저가 4억8천
- ⑦ 동구 학동 (토 169㎡, 건물 277㎡) 감평가 4억, 최저가 2억8천

근린 상가

- ⑧ 서구 치평동 (토 37㎡, 건물 165㎡) 감평가 3억6천, 최저가 1억3천
- ⑨ 광산 도산동 (토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저가 5천5백
- ⑩ 북구 중흥동 (토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⑪ 서구 금호동 (토 14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5백, 최저가 4억5천8백

주유소

- ① 남구 양천동 (토 1,335㎡, 건물 135㎡) 감평가 7억8천, 최저가 4억9천5백
- ② 서구 마북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9백

토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8백,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 경매학원강의

〈상무점/운암점〉

실전스터디반 모집중

매주 초 개강

이제는 경매 대중화 시대 나만의 재테크 꼭 준비필요!!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실전

직장인반 (저녁7시)

상무점(한국경매학원)

- 수요일 오전10시~12시(저녁7시)
- 평생실전반
- 입찰부터 임대매매, 건축(개발), 리모델링까지

운암점(대한경매학원)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7시~9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

010-6832-9700 062-382-5500